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 100
(2011). 12

21

수요일

음력 11. 27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 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튼튼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가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의 대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 최대의 국상,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흑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 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이 높이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곁을 함께 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 곁사람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련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것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며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림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조성된 정세는 준엄하지만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비분에 떠는 삼천리강토, 하늘땅에 차넘치는 민족의 대슬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로동계급, 협동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가장 비통하게 애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전에

해외 동포들 조의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전에 20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조의를 표시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절세의 위인을 잃은 커다란 비분에 잠겨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구열에는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내신 절세의 위인을 잃은 커다란 비분에 잠겨있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호상을 서고계시었다. 령구열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로동적위대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 동포들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의 명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해외동포들은 비통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전에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으며 그의 령구를 돌아보았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그 들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총련 일군 리홍일은 오열을 터뜨리며 이렇게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리순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은 비애의 눈물을 머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리 목매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눈을 뜨십시오. 조국에서 얼마전까지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접하였는데 왜 이렇게도 불시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습니까.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는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해하시겠습니까. 온 민족, 온 세계가 슬픔의 눈물로 가슴을 적시고있습니다. 산천초목도 몸부림치고있습니다.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조금도 돌보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어버이장군님의 넋원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리순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은 비애의 눈물을 머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리 목매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눈을 뜨십시오. 조국에서 얼마전까지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접하였는데 왜 이렇게도 불시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었습니까.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는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남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 남조선의 야당들과 종교단체 깊은 애도 표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여사가 19일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2000년 6월 6. 15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의 리정표를 마련 해주시었다고 하였다.

국방위원장께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특사조의방문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19일 조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조문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급병으로 예상하게 서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하여 크나큰 슬픔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

단을 서울에 보내주시었다고 하면서 조문을 하는것이 도리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뜻밖에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시었다고 하면서 너무도 갑자기 애

석하게 서거하신데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남조선의 야당인 민주통합당 인사들이 19일 조의를 표시하였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국회》** 의원 박지원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너무도 뜻밖에서 서거하신데 대해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위원장께서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들과 합의하신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정신은 앞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문대표단의 파견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19일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본사기자

범민련 남측본부 조문 발표

활짝 열어놓으시어 겨레앞에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단체는 칭송하였다. 단체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던 남녘저쪽에 있어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거하시었다는 소식은 너무도 뜻밖이라고 하면서 통일애국민중모두의 마음을 담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삼가 애도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로무현재단 조문 단 파견을 결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시

었다는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로무현재단이 조문단을

파견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

본사기자

